

전남도, '20조 시민공동체 포럼' 온라인 플랫폼 개설

특별재정금, SOC 중심 벗어나 시민 목소리로 직접 설계도 누리집서 시민위원·전문위원 접수...정책 제도 가능

전남도는 전남·광주 시·도민 누구나 시민위원과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20조 시민공동체 포럼' 온라인 플랫폼을 정식 개설했다.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정부가 특별재정금을 지원한다.

자는 단호한 의지에서 출발했다.

"20조 시민공동체 포럼"은 기존 위원회와는 다르게 운영된다. 지역에 살며 일상의 불편함을 느껴본 시·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아이 키우기 편하게 만들어 달라', '골목 상권을 살려달라'는 시민의 생생한 아이디어 등이 20조 원 규모의 '정책 마스터 플랜'에 담길 예정이다. 지역 주민의 삶에서 출발하는 정책 설계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포럼의 목표는 이전처럼 다리를 놓거나 건물을 올리는 SOC 중심 투자에서 벗어나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이 돌아오는, 27개 시군구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포럼의 핵심은 규모와 개방성이며, 민·관 협력모델로 운영된다. 시민위원과 정책위원으로 구분해 모집하며, 시민위원은 320만 시·도민 누구나 참여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정책위원은 △미래산업 △문화·예술 △

농수산 △보건·복지 △기분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로 운영한다. 정책제안, 공론화에 그치지 않고 향후 있을 포럼, 토론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관심있는 지역민은 시민위원과 정책위원 중 원하는 역할로 신청하면 된다.

포럼으로 수립한 정책 제안은 각종 논의를 거쳐 실질적 투자 우선순위와 사업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강원도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20조 원 예산은 단순한 예산이 아닌 전남·광주 공동체

의 미래 설계도"라며 "전례없는 20조 원 예산을 설계할 '20조 시민공동체 포럼'은 대한민국의 최대 정책 참여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인 만큼, 320만 특별시민이 직접 참여해 미래 특별시를 설계해달라"고 강조했다.

20조 시민공동체 포럼 시민·정책위원 참여와 정책 제안은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에서 참여·접수할 수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시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정당업무협의회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4개 정당 광주시당 관계자들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정당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당과 정치발전을 위한 정책선거 결의 다짐 퍼포먼스와 후보자 등록 관련 사항,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 정당의 회계사무, 정당의 지방선거 관련 협조 사항 등이 논의됐다. 사진제공=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함께하는 육아' 광주 100인의 아빠단 운영

3세~초등 2학년 아빠 대상 오늘부터 선착순 양육정보·육아교육·체험 프로그램 참여 기회

광주시가 아빠의 육아참여를 넓히고 가족 친화적 양육문화 확산에 나선다.

광주시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는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고 가족 친화적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2026년 제8기 광주 100인의 아빠단' 참여자를 모집한다.

'광주 100인의 아빠단'은 육아에 관심 있는 아빠들이 함께 모여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커뮤니티이다. 모집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3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2018~2023년생) 자녀를 둔 아빠로, 100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참여자들은 전문가 강의, 체험형 프로그램, 미션 수행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활동 내용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된다.

선발된 아빠들에게는 육아 관련 교육 콘텐츠와 가족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우수 활동자에게는 소정의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아빠는 네이버 카페 100인의 아빠단 공식 커뮤니티 광주 게시판이나 안내문에 포함된 정보부(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23일부터 4월5일까지다.

최경화 시 여성가족국장은 "아빠의 육아 참여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행복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이번 '광주 100인의 아빠단'을 통해 아빠들이 육아 경험을 소통하고 공유하며 일상에서 육아 참여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양동민 기자 yang00@

학교 밖 청소년 교육활동비 지원 최대 60만원

광주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오는 2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9월부터 18세까지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비와 문화체험비 등을 지원해 학습과 진로 탐색을 돕는 맞춤형 정책으로,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18세 학교 밖 청소년이며, 연령

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9~12세는 연간 40만원(분기별 10만원), 13~18세는 연간 60만원(분기별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청소년들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된다. 검정고시 준비 등 교육비, 도서 구입비, 독서실 이용료, 문화체험비 등 학습과 진로 형성을 위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오는 23일부터 '광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누리집'(www.flyyouth.or.kr)과 '제로페이 마

여수·영암에 '외국인 노동자 쉼터' 도입

최대 90일 숙식·법률·의료·재취업까지 맞춤형 지원

전남도는 인권침해와 실직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근 여수와 영암군에 '외국인 노동자 쉼터' 운영 기관으로 선정했다.

외국인 노동자 쉼터는 인권침해, 실직, 사업장 변경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남도가 자체 재원을 투입해 시·군 공모 방식으로 추진한다.

그동안 전남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위기상황에 처하면 민간단체 지원에 의존해 왔지만 앞으로는 전남도와 시·군, 민간단체가 협력해 직접 보호·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공모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거주하는 동부권과 서부권 거점인 여수와 영암군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시·군은 공모를 통해 쉼터 운영 민간기관을 선정할 뒤 시설 환경 개선을 거쳐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쉼터는 수용 인원 10명 이상 규모로 운영되며, 전담관리 인력 1명 이상이 상주하고 보건·위생, 안전, 재해 예방 기준을 갖춘 시설에서 운영된다. 임소한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최대 90일 동안 숙식과 생활정보 제공 외에 법률·노무 상담,



영암 외국인 노동자 쉼터. 사진제공=전남도

한국어 교육, 의료 서비스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전남도는 쉼터 운영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 재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안정은 산업현장 인력 유지와 지역경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열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고문의 062)370-7070
구독문의 062)370-7080

뉴스는 진실이어야 합니다!

거짓 없는 보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
광남일보를 구독해 주세요

FACT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3-4층 [우/61234] · T.062)370-7000 · F.062)370-7005